

반도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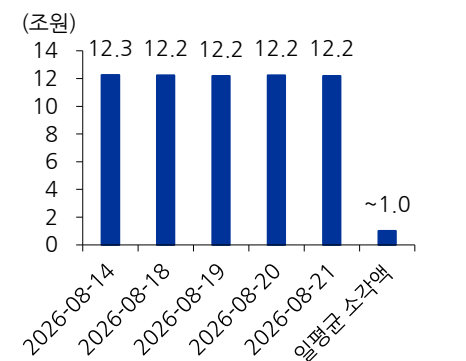
반도체 손인준
6154 / sij@eugenefn.com

주주환원 경쟁, 이제 1라운드

- “ SK하이닉스는 8/19 이사회에서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 및 전량 소각을 결의했다. 시가총액의 3.3%에 해당하는 2,407만주(40조원)를 3개월 내 장내 매수하며, 취득 완료 후 즉시 소각한다. 2025년~2027년 누적 FCF 기준 주주환원 비율 역시 기존 '50% 이하'에서 '50% 이상'으로 상향했으며, 3Q26과 4Q26 실적발표회에서 특별배당 등을 포함한 추가 주주환원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.
- “ 삼성전자는 8/21 이사회에서 2026년 총 90~110조원의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했다. 3Q26 기준 약 30조원의 특별 현금배당을 10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, 잔여 60~80조원의 배당·자사주 소각 배분은 연간 실적이 확정되는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이와 별도로 임직원 성과급 재원 목적의 자사주 15조원 매입(8/24~11/21)을 결의했다.
- “ 삼성전자의 경우 SK하이닉스와 달리 기존 주주환원 정책의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, 추가 상승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. 다만 향후 점진적인 추가 주주환원 발표로 시장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.
- “ 삼성전자의 잔여 60~80조원은 특별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조합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. 삼성생명·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산법 10% 한도에 근접해 있어 소각 비중이 배당 대비 낮아질 수 있다. 다만 지난 3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블록딜(1.4조원)이 진행된 바 있다. 지분 추가 매각을 동반한 자사주 소각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.
- “ 자사주 매수 규모는 60일 평균 거래대금 기준 SK하이닉스의 약 8%, 삼성전자의 3~4%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. SK하이닉스의 경우 매수 첫 주 기준 일평균 약 65만주, 금액으로 약 1조원씩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. 현재 속도가 유지될 경우 10월 중순이면 취득이 마무리된다.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보유 자사주(약 22조원 가치)에 이번 자사주 매입액 15조원을 더하면 약 37조원으로 올해 실적에 근거한 특별성과급 재원은 사실상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. 삼성전자의 일평균 매수액은 2,500~4,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.
- “ 두 종목 모두 연말까지 확정된 대규모 매수 주체가 존재하는 셈이며,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 내 공급이 대형주로 재차 쏠리고 소부장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. 현재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 하에 시가총액 대비 매입 규모, 거래대금 대비 비중, 소각 확정 여부 등 수급상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. 다만 삼성전자 역시 특별 배당금의 일부만 재투자되더라도 상당한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. 양사 모두 향후 구체적인 추가 주주환원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한 만큼, 업체 간 주주환원 경쟁을 통한 추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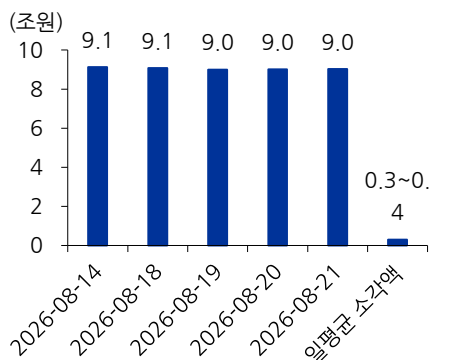
업종투자 의견 OVERWEIGHT

SK하이닉스 자사주 소각 vs. 거래대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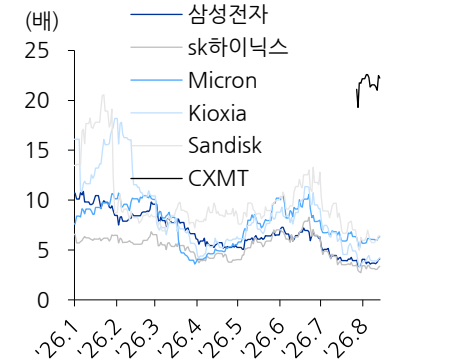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vs. 거래대금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메모리 업종 12MF PER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 당사 투자이견 비율(%)

(2026.06.30 기준)